

석화업계, 日 ‘위기극복’ 전략 주목 고부가가치 제품 등 협력범위 확대

中 공급과잉 등 업황부진 대응
日 석화업계 공동 사업전략 구성
“서로의 강점 배우고 교류할 것”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일본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발 공급 과잉 현상을 맞아 그동안 대중국 수출에 의존적이었던 한국의 석화 산업에 ‘탈중국’ 분위기가 형성되면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석화 업황 부진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LG화학 과 한화솔루션은 석화 부문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지난 1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가 약 1조원으로 집계됐다.

석화 업계의 부진 요인으로는 중국발 공급 과잉이 꼽힌다. 이에 중국의 석화 공급 과잉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5월 30일~31일 이틀간 ‘아시아석유화학회의(APIC)’가 개최됐다. 해당 회의는 일본과 대만·말레이시아·태국·싱가포르·인도 등 7개국 석화협회가 주축으로 참석했다.

특히 국내 업계는 일본 석화업계와

공동으로 사업 전략을 구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화학 한국석유화학협회 회장 겸 LG화학 부회장은 회의에 참석해 “우리가 일본을 참고할 것이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석화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과거 일본의 사례와 유사해 참고할 부분이 많다고 분석한다. 앞서 일본 석화 산업은 중동발 공급 과잉에 고난을 겪었던 경험 있다.

지난 1950년대에 일본 석화 산업은 내수를 중심으로 몸집을 키웠다. 그러다 2000년대 중동이 석화 산업에 뛰어들면서 일본은 큰 타격을 받았다. 석화 제품의 원료인 나프타를 중유에서 추출하는 만큼 산유국인 중동의 원가 경쟁력을 따라잡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 범용 부문을 통·폐합해 미쓰비시화학, 미쓰이화학 등 소수 기업 중심으로 생산 구조를 재편했다. 또한 동남아시아 시장으

로 수출 범위를 넓혔다. 이를 통해 일본 업계의 아시아 수출 비중은 지난 2010년 3% 수준에서 지난 2023년 18%까지 증가했다. 전체 매출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50% 아래로 떨어졌다.

헬스케어, 전자소재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산업 사이클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도 실시했다. 이러한 면에서 일본의 경영 전략을 배워야 한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내 기업들도 과거 일본과 비슷한 전략을 펼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중국이 장악한 범용 부문을 축소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성하는 것이다.

석화업계 관계자는 “국내 석화업계와 일본 석화업계는 서로의 강점을 배우고 교류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다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두 나라의 차이는 크지 않으므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효과적인 경영 전략을 도입하고, 산업 다각화를 추진하여 장기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한화오션의 대형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이 진수되고 있다.

한화오션, 대형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 진수

15MW급 발전기 5기 적재 가능

한화오션이 대형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WTIV) 1척을 진수하며 본격적인 해상풍력 밸류체인 강화에 나섰다.

10일 한화오션에 따르면 이번에 진수한 대형 WTIV는 지난 2021년 카탈라로부터 수주했다. 길이 148m 폭 56m 규모 설비로, 15MW급 대형 해상풍력발전기 5기를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이다. 수심 65m까지 발전기 설치가 가능하다.

한화오션은 지금까지 WTIV 2척을

인도했고 현재 WTIV 2척을 건조 중이다. 이번에 진수한 WTIV가 성공적으로 인도되면 급증하는 대형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해 낼 것으로 한화오션은 기대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친환경 해양 사업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실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이번에 진수한 대형 WTIV를 성공적으로 인도해 WTIV 시장 1위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LS전선, 세계 최고 전압 ‘HVDC케이블’ 양산

525kV 직류송전... 테넨트 공급
獨-네덜란드 전력망 연계사업 사용

LS전선이 세계 최고 전압 HVDC 케이블 양산에 나선다.

LS전선은 525kV(킬로볼트) 초고압 직류송전(HVDC) 케이블의 양산에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현존하는 DC 케이블 중 최고 전압 제품이며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 업체만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양산된 제품은 테넨트(TenneT)사의 2GW(기가와트) 규모의 송전망 사업 중 ‘발윈(BalWin)4’와 ‘란윈(LanWin)1’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북해 해상풍력단지과 독일과 네덜란드 내륙을 HVDC 케이블로 잇는 사업이다.

LS전선은 지난 2023년 5월 테넨트와 2조원대의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전 세계 케이블업체의 단일 수주금



최근 강원도 동해시 LS전선 동해사업장에서 열린 ‘525kV HVDC 케이블 양산 기념행사’에서 LS전선과 테넨트(TenneT)사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S전선

액 중 최대 규모다.

HVDC는 AC(교류)에 비해 대용량의 전류를 저손실로 멀리 보낼 수 있어 장거리 송전망을 중심으로 도입이 늘고 있다. 유럽에서는 송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해상풍력, 국가 간 전력망 연계 사업에 주로 HVDC 케이블을 사용한다.

LS전선 관계자는 “최근 유럽연합(E

U)가 해상풍력 공급 목표치를 2030년 60GW에서 2050년 300GW로 상향한 만큼 시장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고 말했다.

LS전선은 최근 미국 공장 건설, LS마린솔루션의 설비 투자, LS에코에너지의 유럽, 아시아 사업 추진 등 글로벌 해외케이블 사업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기아, ‘더 2024 모닝’ 출시... GT라인 추가

GT라인, 전용 디자인 적용

기아가 고객편의 사양을 높인 ‘더 2024 모닝’을 10일 출시했다.

더 2024 모닝은 연신변경 모델로 GT 라인 트림을 새롭게 추가해 고객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신규 사양을 적용해 운전자 편의성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더 2024 모닝의 GT라인은 전용 디자인 요소를 적용해 기본 모델보다 한층 더 강인한 이미지를 완성했다.

외관은 라디에이터 그릴과 인테이크 그릴을 확장해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했다. 전면가공 16인치 휠, 블랙 하이그로시 사이드실 폴딩, 디퓨저가 적용된 후면 범퍼, GT 라인 전용 엠블럼 등을 통해 차별화된 디자인을 구현했다. 여기에 헤드램프, 주간주행등, 전면부 방향지시등, 센터 포지셔닝램프에 모두 LED를 기본으로 적용했다.

실내는 D컷 스티어링 휠과 메탈 페달을 적용해 GT 라인만의 감각적인 공간을 연출했다.

특히 더 2024 모닝 시그니처 트림부터 국내 내연기관 경차 최초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EPB)와 오토 홀드를



‘더 2024 모닝’. (위)전측면 (아래)실내 /기아

기본으로 탑재했다.

차량 판매 가격은 1.0 가솔린 ▲트렌디 1325만원 ▲프레스티지 1500만원 ▲시그니처 1725만원 ▲GT 라인 1820만원이며, 1.0 가솔린 밴 ▲트렌디 1300만원 ▲프레스티지 1370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韓 AI 성숙도, 태평양 지역 평균 이상”

인텔, 호주, 일본과 함께 3단계 평가

한국의 인공지능(AI) 성숙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균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곳은 싱가포르였다.

인텔은 10일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아태 지역 8개국의 AI 성숙도를 조사한 ‘2024년 IDC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성숙도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아태 지역 AI 지출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28.9%씩 성장해 2027년에는 907억 달러(약 125조원)에 도달할 예정이다.

AI 성숙도는 기업, 정부, 사회경제적 준비 상태 요인이라는 세 가지 주요 측면에서 평가됐다.

한국은 호주, 일본과 함께 ‘AI 혁신’ 단계인 3단계로 분류됐다. 잘 구축된 기술 인프라와 데이터 관리 전략을 통해 AI 이니셔티브를 잘 계획하고 관리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제조업으로 성장한 대기업과 함께 강력한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AI 분야에서 큰 이점을 누리고 있다고 봤다. 전체 AI 지출은 2023년부터 연평균 21.6% 증가해 2027년 41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가장 높은 ‘AI 리더’ 4단계는 싱가포르로, AI 우선 및 데이터 지원 문화가 존재하고 AI를 확장해 단기 및 장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인도, 대만은 ‘AI 실무’ 단계인 2단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AI 탐색’ 1단계로 평가됐다.

/김서현 기자 seoh@

레노버,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신제품 출시

씽크패드 P14s 5세대 등 5종

한국레노버가 10일 AI를 지원하는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신제품 5종을 출시했다.

새롭게 선보인 제품은 인텔 프로세서 탑재한 ▲씽크패드 P17세대 ▲씽크패드 P16v i2세대 ▲씽크패드 P14s i5세대 ▲씽크패드 P16s i3세대와 AMD 프로세서가 장착된 ▲씽크패드 P

14s 5세대 등 총 5종이다.

씽크패드 P17세대는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중 세계 최초로 LPDDR5x LP CAMM2 메모리를 탑재했다. LPCA MM2는 레노버와 협업으로 미국 마이크로닉스 선보인, 빠르고 에너지 효율적인 PC용 모듈형 메모리 솔루션이다.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신제품 5종은 모두 ISV(독립소프트웨어개발업체) 인증을 받았다.

/김서현 기자